

DMZ
파주 대성동마을
문화자원조사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온 사람들

경기도 DMZ
자유마을 대성동

일러두기

- 이 책은 경기도와 파주시의 의뢰로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한 대성동마을 민속조사보고서이다.
- 현장조사는 2014. 5.~2014. 11.까지 진행하였으며 DMZ 내에 위치한 마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보자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였다.
- 책에 수록한 내용은 연구진들이 문헌·구술조사를 통해 작성하였기에 본지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 발간사 |

파주 대성동마을 문화자원조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한반도에 DMZ(비무장지대)가 설정된 이래,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오랜 시간 외부의 출입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제약과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반면 반세기동안 고립된 관계로 자연생태 환경과 옛 마을의 전통이 잘 보존되었습니다. 통일 후 변화를 대비하는 경기도에서는 DMZ 안 대성동마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마을의 자연, 고고, 역사, 민속 등 문화자원을 발굴하고자 종합적인 마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성동마을이 경기도의 대표 마을로 조성될 수 있을 만큼 문화 자원이 풍부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주 대성동마을에는 한성백제시대로 추정되는 토성과 조선시대 강릉 김씨 동원군파묘역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들은 대성동 마을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화되기 이전의 옛 농기구들도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역사유적과 함께 잘 보존하여 방문객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성동 마을은 그 오랜 역사만큼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토리를 줍다가 이북으로 끌려갔다 온 이야기는 DMZ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경험들로 대성동마을이기 때문에 채록할 수 있는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도 바로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 혜택이 대성동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대성동 마을의 문화자원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파주시 관계자 및 대성동마을 주민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직원과 외부 연구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경기도지사 남 경 필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자원의 보고(寶庫) 대성동마을

파주에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징인 DMZ이 있습니다. DMZ은 분단의 고통과 단절의 의미가 아닌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이미지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와 생명의 DMZ의 중심에 민간인 마을 대성동마을이 있습니다. 분단역사 현장인 대성동마을을 조사하고 기록한 「대성동마을 문화자원조사 보고서」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성동마을에는 50여 가구 2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접 거리에서 정전협정 후 60여 년 동안 출입이 통제된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활 하면서도 평화통일의 날을 염원하며 마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민속생활 풍습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자체가 세계유일의 문화자원을 보유한 마을박물관인 것입니다.

대성동마을의 생생한 생활사를 증언해 줄 어르신들이 고령으로 이제 몇 분 안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을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작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록을 토대로 세계유일의 분단역사 현장을 에코뮤지엄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안보관광의 명소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대성동마을의 주민 한분 한분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땀으로 기록을 만들어 내는데 애쓰신 경기문화재단의 연구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파주 대성동마을과 주민들을 위해서 이 보고서가 기반이 되어 파주의 자긍심이 되는 훌륭한 문화자원개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 12

파주시장 이 재 홍

목차

1. 대성동의 마을환경과 역사	
1-1 마을의 자연·지리적 환경	12
1-2 마을의 고고·역사적 환경	19
1-3 마을의 인문환경	31
1-4 문화유적과 인물	58
2. 자유의 마을, 대성동의 형성	
2-1 옛 지도를 통해 본 대성동마을	100
2-2 자유의 마을이 되기까지	106
3. 주민들의 의식주생활	
3-1 등걸잠뱅이와 사리마다 입고 - 의생활	133
3-2 걸어서 간 개성장 - 식생활	137
3-3 선전마을로 다시 자리잡은 가옥 - 주생활	145
4. 생업과 생활용구	
4-1 주요생업활동	180
4-2 마을 속 박물관 - 생활용구들	212
5. 세시풍속과 놀이	
5-1 마을의 한 해, 세시풍속	252
5-2 대성동마을 사람들의 놀이	267
6. 일생의례	
6-1 혼자서 삼 가르고 - 출산	277
6-2 100사람이 나눠먹은 백설기 - 백일과 돌	281
6-3 트럭타고 온 시집 - 혼례	282
6-4 안하고 죽으면 원혼이 된다는 - 환갑	288

6-5 남은 자들의 의례 - 상장례	289
6-6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 - 제례	298

7. 민속신앙과 민간의료

7-1 마을사람들의 신앙생활	308
7-2 병원이 없던 시절의 의료생활	316

8. 마을주민 생애사

8-1 마을 할아버지의 살아오신 내력	330
8-2 마을 할머니의 살아오신 내력	344

9.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

9-1 마을주민들의 기억 속 주요사건	392
9-2 마을주민들의 옛이야기	399
9-3 마을주민들의 노랫소리	419
9-4 마을주민들의 속담	421

10. 문화콘텐츠 활용프로그램

10-1. 개요	426
10-2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사례, 대성동 적용 방안	432
10-3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전시계획 및 체험프로그램 제안	465
10-4 문화자원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사례	508

부록. 사진으로 보는 대성동마을의 과거와 현재

1. 옛 사진 속 대성동마을	544
2. 대성동마을의 현재	557
3. 대성동마을에서	564